

### 한형조 무문관 탐방

#### 7 구지의 손가락

俱胝和尚, 凡有詰問, 唯舉一指, 後有童子, 因外人問, 和尚說何法要, 童子亦舉指頭, 師曰, 遂以刀斷其指, 童子負痛號哭而去, 師復召之, 童子迴首, 師却舉起指, 童子忽然頓悟, 師將頌曰, 謂來曰, 吾得天龍一指頭禪, 一生受用不盡, 言訖示滅.

無門曰, 俱胝弄童子, 悟處不在指頭上, 若向者裏覓得, 天龍何俱胝弄童子, 與自己一串穿却.

師曰, 俱胝雖老天龍, 利刀親提劫小童, 巨靈擲手無多子, 分破巖山千萬重.

\*구지화상은 학인들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말없이 엄지 손가락을 세웠다. 그러던 어느 날, 외지 손님 하나가 절의 동자(童子)에게, "스님께서 무슨 설법을 하시더냐"고 물었다. 동자는 늘 보던 대로 손가락을 세워 보였다. 구지가 이를 전해 듣고, 칼로 동자의 손가락을 잘라버렸다. 동자는 아픈 손을 움켜쥐고 울면서 달아났다. 구지가 다시 그를 불렀다. 동자가 고개를 돌렸다. 구지는 자신의 손가락을 세워 보였다. 그 순간 동자는 깨달았다.

구지가 세상을 뜨며 대중에게 말했다. "내가 천룡(天龍)의 '손가락 선'을 얻어 평생을 써도 다 쓰지 못했다." 말을 마치자 곧 입적했다.

\*나 해가 말한다. "구지와 동자의 깨달음은 손가락 끝에 있지 않다. 여



승이 평소 뿔 가르치시더냐." 어려운 질문에 대덕(大德)을 만나지 못하고 가야하는 아쉬움이 컸을 것이다. 아이는 늘 보던 대로 손가락 하나를 세워 보인다. 손님은 고개를 가우우하며 산을 내려간다. 밖에서 돌아온 구지가 그 사실을 알았다. 뿔 칼을 들어 그 손가락을 잘라 버렸다. 극심한 고통에 울부짖으며 방을 나가던 아이를 구지가 다시 불러 세운다. 아이가 돌아온다. 그때 구지의 손가락이 다시 세워진다. 아이는 홀연 구지의 손가락에 가리운 비밀을 깨닫는다.

참으로 극적인 드라마이다. 그런데 <오동회원(五燈會元)>이나 <선문염송(禪門頌頌)>은 좀 더 치밀한 플롯을 갖고 있다. 아이가 손가락을 부둥켜 안고 방을 뛰쳐나가고 그를 구지가 불러 세우는 것까지는 동일하다. 아이가 돌아올 때, 구지는 자신의 손가락을 세워 보이는 대신, 아이에게 묻는다. "부처의 진리가 무엇이었나?" 극심한 통증 가운데서도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치켜올렸다. 이를 어찌나, 아이의 손가락은 거기 없었다. 보이지 않는 손가락의 빈 자리, 아이는 할 연대였다.

대체 구지와 동자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가 화두의 눈이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 <벽암록(碧巖錄)>에도 실려 있다. 해

### "손가락 너머 소식을 붙잡아라"

천룡·구지·동자·독자 한 공간에 참여

기서 그 소식을 얻는다면, 천룡과 구지와 동자를 그대와 한 꼬챙이에 꿰어 찬다.

\*송하여 가로되, "구지는 천룡을 바보로 만들고, 예리한 칼을 들어 동자를 시험했네. 그 옛날 거령선이 성를 손을 들어, 화산의 천만 겹을 돌로 갈라 버렸듯이."

게는 말한다.

"손가락 끝에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라. 손가락을 통해 그 너머의 소식을 당하(當下)에 붙잡아라. 그리하면 손가락을 전한 천룡과 구지가, 손가락을 잘린 동자와 그리고 지금 그 소식을 '읽는' 네가, 한 줄에 꿰 뚫 동일한 눈으로 보고, 동일한 귀로 들으며, 동일한 공간에 참여할 것이다." 그곳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 해고는 앞의 제1회 조주무자에서와는 달리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는다. 한번이면 됐다고 여겼을 것이다. 선은 중언부언을 싫어한다. 송(頌)이라는 형식이 선호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오동회원(五燈會元)> 권4에는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다. 처음 무주(婺州)의 금화산(金華山)에 머물고 있던 구지(850-?)에게 한 여승이 찾아왔다. 삿갓도 벗지 않고 성를 들어 와서 방안을 세바퀴 돌고 이렇게 물었다. "한 말씀을 해 주시면 삿갓을 벗지요." 세번이나 물었지만 구지는 진땀을 흘리며 아무말도 못했다. 그 부끄러움을 끌어안고 감연히 분발, 제방(諸方)의 선지식을 찾아 진짜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는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산신이 나타나, 곧 육신 보살이 찾아올 것이니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다고 일러준다. 며칠 후 천룡이 구지의 우거(寓居)를 방문한다. 구지가 전에 있었던 일을 고하자, 천룡이 문득 손가락 하나를 세워 보였다. 구지는 이 대답에 일대사를 마쳤다. 그는 천룡으로부터 얻은 이 손가락을 평생을 써도 못 다 쓰고 갔다.

그런데 한 동자가 구지의 흉내를 냈다. 구지를 찾아온 손님이 동자에게 묻는다. "네 스

해게의 송을 보자. "구지는 천룡을 바보로 만들었다" 그렇지, 천룡의 뜻이 어찌 손가락에 있었는가. 구지는 평생을 천룡의 뜻을 왜곡하고 기만했다.

그래서 현사(玄沙師備 835~908)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놈의 손가락을 분질러 버렸을텐데." 이 비난을 들었던지 구지는 과연 동자의 손가락을 자르고 말았다. 그 호쾌함이라니, 긴 말이 필요 없는 그 단순성과 직접성. 그것은 거령선(巨靈禪)이 침침 구만결인 화산(華山)을 한 손에 쥔 것 같고, 팔린 동자의 손가락 사이로 지금도 누런 황하가 유유히 웅혼하게 흐르고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 불교와 수학

#### 10 우주론 김용운

필자는 수년전 캠브리지 대학에서 세계적인 동양 과학사와 생화학, 두 분야에 걸친 세계적인 권위자 J.니담 교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 '인간 생명의 우주적 환경'을 주제로 한 매우 인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는 "종교 또는 신학은 최선의 거시, 극미 세계에 관한 새로운 과학 업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적인 대중교는 대부분이 이전보다도 수백년 전에 창시되었으므로 당시의 교리를 경전의 내용 그대로 고집하는 것은 만화적이다. 그것과는 반대로 이전 수백년 전의 공간관이 지금의 과학 지식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오랫동안 황당 무거운 것으로 여겨져 왔을 것이다. 현대의 최신 과학 지식과 불교의 공간관, 시간관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최신의 우주론은 '우주는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을까?' 하는 고대 이래의 인류적인 중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즉 '우주는 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불교의 '무시무종(無始無終, 시간도 끝도 없다)'과 일맥상통한다. 최신 과학은

### 法數로 배우는 불교

<17>



### 선정 마음 집중 지혜 성취 수행 번뇌 차단...세속적 몰입과 달라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지병을 특별히 하지 않으면 빗물이 새듯 마음을 굳게 수행하지 않으면 번뇌가 스며든다"고 하셨다. 여기서 마음을 굳게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지 못하다는 뜻이다. 즉, 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온갖 그릇된 마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지럽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번뇌를 차단시키고 마음의 고요를 가져오게 하는 정을 성취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수행 덕목인 것이다.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끊임없이 흐르며 작용한다. 마치 완승이처럼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온갖 행위를 일으키는 것이다. 자신 스스로가 일으키면서도 자신 스스로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고 깨지는 마음의 활동은 탐념, 상념, 어리석음 등의 온갖 번뇌를 야기시키고 한없이 방황을 가져오게 한다. 때로는 보고 듣고 맛보는 경계를 따라 마음은 흘러가기도 하고 지나간 과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회상하며 빠져있기도 한다. 정학은 바로 마음의 이러한 작용을 쉬게하고 뒤에 나오는 지혜를 성취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수행 덕목인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끊임없이 흐르며 작용한다. 마치 완승이처럼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온갖 행위를 일으키는 것이다. 자신 스스로가 일으키면서도 자신 스스로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고 깨지는 마음의 활동은 탐념, 상념, 어리석음 등의 온갖 번뇌를 야기시키고 한없이 방황을 가져오게 한다. 때로는 보고 듣고 맛보는 경계를 따라 마음은 흘러가기도 하고 지나간 과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회상하며 빠져있기도 한다. 정학은 바로 마음의 이러한 작용을 쉬게하고 뒤에 나오는 지혜를 성취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수행 덕목인 것이다.

###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 과학: '공의 상태' 대폭발 후 우주탄생

### 불교: 삼천대천세계 10억 수미계 존재

이 사실을 빅뱅(Big Bang)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설에 의하면 우주의 시작은 소립자보다 작은 극미의 우주이며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 등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였다. 이것에 양자론적인 물리현상(단발효과)이 발생함으로써 우주가 탄생되었다. 우주가 탄생된 1/100의 1초 후에는 온도는 1000억도, 그리고 1초 후에는 100억도로 냉각되고 10억년 후에는 온도가 형성된다. 154억년 후에 행성이 태어나고, 인간이 지구상에 나타난 것은 200억년 후의 일이다. <법화경>의 '종지용출품(從地涌出品)'에서는 빅뱅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 많이 묘사되어 있다. 부처님이 말씀하실때 사바세계의 삼천대천국토(三千大千國土) 모두가 진동하여 갈라지고 그 속에서 무량천만억의 보살이 솟아난다. 팔천항하사(八千恒河沙, 갠지스강 전체 모래알의 팔천 배 개수)의 보살이 '석존이 입멸한 후에 사바세계에서 열심히 정진하여 <법화경>의 가르침을 지키며 믿고, 배고고, 공양할 수 있도록 허용되기를 간청했다. 이에 대해 부처님은 "그 칭은 필요없다"고 하신다. 이때 대지가 진동하여 갈라진 대지에서 육만항하사(六萬恒河沙) 만류의 종자(從者)가 뒤따라 나타난다. 이들이 미래 세계에 <법화경>의 가르침을 전할 것이다. 이와 같이 차례로 나타나는 엄청난 보살의 등장은 빅뱅의 결과와 같다. 불교의 거대한 시

정(正)은 아무리 깊더라도 수행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마음이 대상에 빼앗겨진 상으로서의 집중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은 계를 닦지 않아도 얻을 수 있고 탐욕을 일으키면서도 얻을 수 있다.

몰입을 주로 하는 정이란 마음이 대상을 향해 빼앗겨 있다든가, 과거나 미래를 상상함이 없이 마음에 어떤 주제를 만들어 집중하고 있는 정을 말한다. 이것은 불법을 제외한 다른 종교, 예컨대 한두교나 자이나교 혹은 신선도 같은 곳에서 행하는 일종의 단순 몰입적 '정' 공부라고 할 수 있다. 마음에 성의 이름이나 주문, 혹은 어떤 경구를 암송한다든가 호흡등을 다스려 다른 생각들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의 주제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깊이 몰입되어 있는 정이다. 정을 불교에서는 하나의 정당한 수행방법으로 인정한다.

불교내에서도 이러한 수행방법을 때에 따라 쓰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의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불가사의한 신비 체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뒤에 나오는 해학을 성취하게는 못하므로 진정한 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지혜를 낳게 하는 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의 작용을 되비추어 보는 조건 밑에 입각한 정이다. 즉, 단순한 속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정으로 해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제 열 <유마선원장>

간관, 공간관은 오늘날의 천문학적 관념의 세계에 대응하고도 남음이 있다.

불교적 공간 세계는 삼천대천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 중에서는 수미산(須彌山)이 있다. 불교적인 거리 단위 요자나(由旬, Yojana)가 그 끝을 나타낸다. 세계의 중심에는 팔만유순(八萬由旬, 약 9억미터) 높이의 수미산이 있다. 이 산을 팔산(八山), 팔해(八海)가 둘러싸고 있으며 그곳을 태양과 달이 돌고 일수미계(一須彌世界)를 이루고 있다. 일수미계가 1000개 모여 소천세계(小千世界), 소천세계가 1000개 모여 중천세계(中千世界), 중천세계가 1000개 모여 삼천대천세계가 된다. 다시 말해서 삼천대천세계에는 약 10억의 수미계(須彌界)가 있는 것이다. 현재의 우주론에서 이 전 우주에는 수천 개의 태양이 산재하고 있다고 추측되어 있는데 삼천대천세계에는 10억 개의 태양이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나타나는 삼천대천세계는 현재도 팽창을 계속하고 있는 우주의 크기를 넘은 거대한 세계이다.

이들 수가 모두 (10<sup>10</sup>)...이라는 식으로 먹음으로 표시하고 있다. 거시 세계의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다. 현대의 종교가 매크로(macro, 거대), 마이크로(micro, 극미)의 과학 업적과 접촉되어야 한다는 J.니담의 주장을 이미 2500년 전의 불교가 성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제2회 출판문화상 대상(서적상) 수상작

##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교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이다." 신국판 / 7,000원

사찰의 초입(初入)인 일주문에서부터 법당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에 간직되어 있는 뜻, 범종 등의 사물(事物), 석등·탑·법당의 구조와 변천을 상세히 밝혔을 뿐 아니라, 대웅전·대적광전·극락전·미륵전·관음전·명부전·삼장각 등에 깃든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정신을 새롭게 느끼게 한다.

\* 불교산책연구원 <불교문화매거진> 동량 안내 \*

- 매일 첫째 목요일 : 불교미술전공교수초청 특강(불상·불화·목공예 등)
- 매일 넷째 목요일 : 김현준 원장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강의
- 시간 : 오후 7시 / 장소 : 대학문화원 (정충동 엠버서더호텔 옆)
- \*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십시오. (02) 587-6613

김현준(金鉉竣) 現 불교산책연구원 원장 著 <법공양> 발행인

불교신앙총서 111

## 관음신앙·관음기도법

불교산책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불교산책지침서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대자비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대다수 우리나라 불자들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참된 기도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님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신앙의 뿌리를 잘 알아서 참된 믿음을 일으키야 하고, 관세음보살의 자비 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관음관법과 기도법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책 속에는 관음신앙의 뿌리부터 관음의 종류, 관음의 구원능력,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게 풀이되어 있다. 고난을 벗어나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제1장 관세음보살 어떠한 분이신가? (관음신앙의 뿌리,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 제2장 자비관음의 여러가지 모습 (성관음·천수관음·심밀관음·육관음 등) / 제3장 관음관 (일념관법·경전 속의 관음관법 등) / 제4장 관음기도법 (관음색신관·관음염불·자광삼메기도법 등)

B6 / 160면 / 값 3,500원

경·봉·대·선·사·일·대·기

## 바보가 되거라

김현준 지음

한국불교선학회의 최고봉 경봉대선사 자화상

"예리한 지혜의 눈과 깊은 자비심으로 모든 이의 자유로운 삶을 일깨워준 경봉대선사. 누구든지 이 책을 펼쳐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살아움직이게 하는 진솔한 대도인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20면 / 값 4,300원